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 7기 문화정책과 기초예술 활성화방안

- 일시 : 2018년 9월 12일 (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 주최 : 진도북(춤)놀이보존회 내드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장애인미술협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극단 연인  
(사)윤상원기념사업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광주광역시협회  
(사)대동문화재단,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오월어머니집, (사)광주마당
- 주관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후원 : 광주광역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 ■ 프로그램

사 회 : 송진희 (호남대학교 예술대학장)

<b>발 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li> <li>▪ 문병재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li> </ul>
<b>토 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감독)</li> <li>▪ 이동순 (조선대 자율전공학부교수)</li> <li>▪ 주 흥 (치유예술가)</li> <li>▪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li> <li>▪ 윤만식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li> <li>▪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li> </ul>

## ■ 목 차

---

1. 발 표	(1)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3
2. 발 표	(2) 문병재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	21
3. 토 론	(1)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감독 -----	43
4. 토 론	(2)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	47
5. 토 론	(3) 이동순 조선대 자율전공학부 교수 -----	51
6. 토 론	(4) 윤만식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	53
7. 토 론	(5) 주 흥 치유예술가 -----	55
8. 토 론	(6)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	59

---

발표문 :

**문화도시 광주! 기초예술  
현황과 발전방안**

**조 인 형**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광주광역시 기초예술 현황과 발전방안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조 인 형(광주전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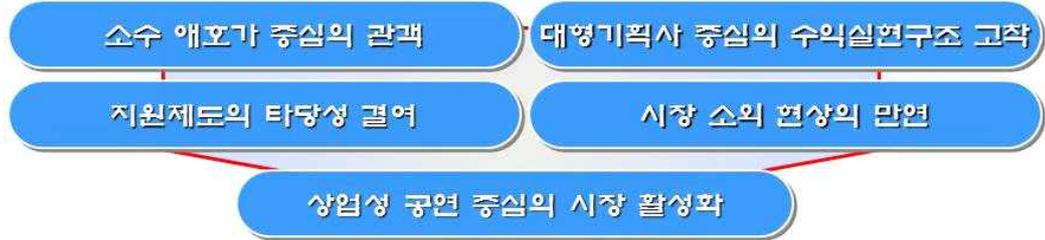
2018. 9.



## 내용

1	서론
2	예술인 실태
3	공연예술시장 현황
4	공연예술에 대한 문제의 인식
5	활성화 방안

## 지역 공연예술의 현실



## 지향점과 가치의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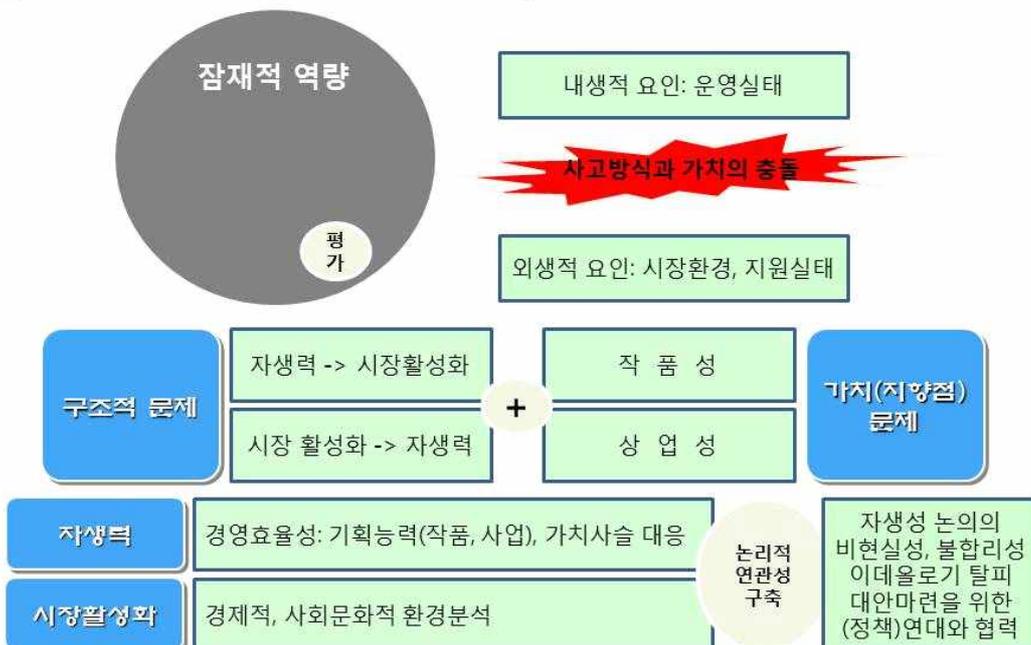
가치지향성에 따른 내발성과 창발성의 보편화 제약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공연단체의 지속가능성 위협

- 적자경영
- 단원 이탈

- 연대와 협력의 결여
- 공연 테마의 다양성 부족

## 문제의 도식화



## 지역 문화예술과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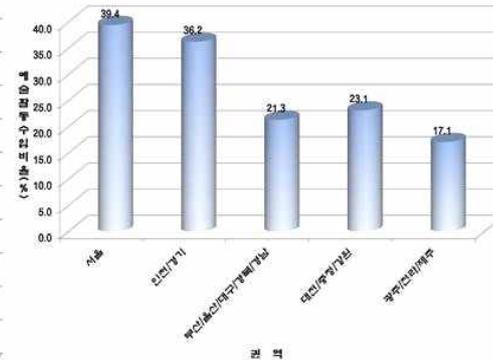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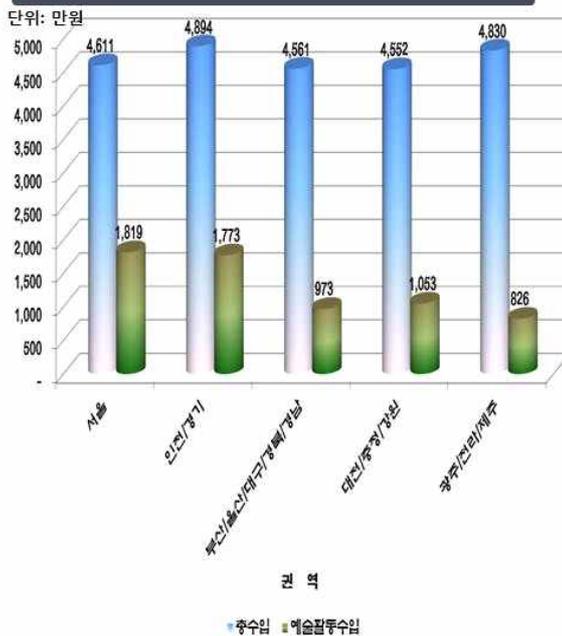
- (민간)단체에 이미 소속된 단원들의 급여 지급 능력 낮음
  - 후원 그룹의 규모가 작은 단체의 경우 급여 없이 낮은 수준의 출연료 지급
- 특정 단체에 소속되기 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
- 결국 기존 단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술단원 및 지원단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발견하기 어려움
- 다수의 단체가 결성되기는 했으나 전업이 아닌 공연일정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경우가 일반적
  - 이러한 상황은 체계적인 연습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연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창출에 대한 기대 붕괴로 인한 수요기반 상실 우려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조건



# 예술인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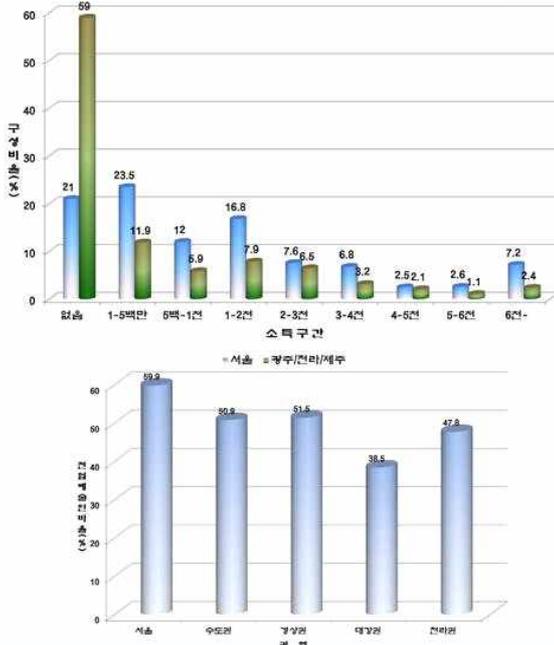
## 예술인 수입 (2015 예술인 실태조사 통계표 기준)



- 총소득은 전체적으로 유사(권역간 편차 연 342만원)
- 예술활동 수입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남
-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큼
- 우리 권역은 수도권의 45.4%에 불과
-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에 의존

## 예술인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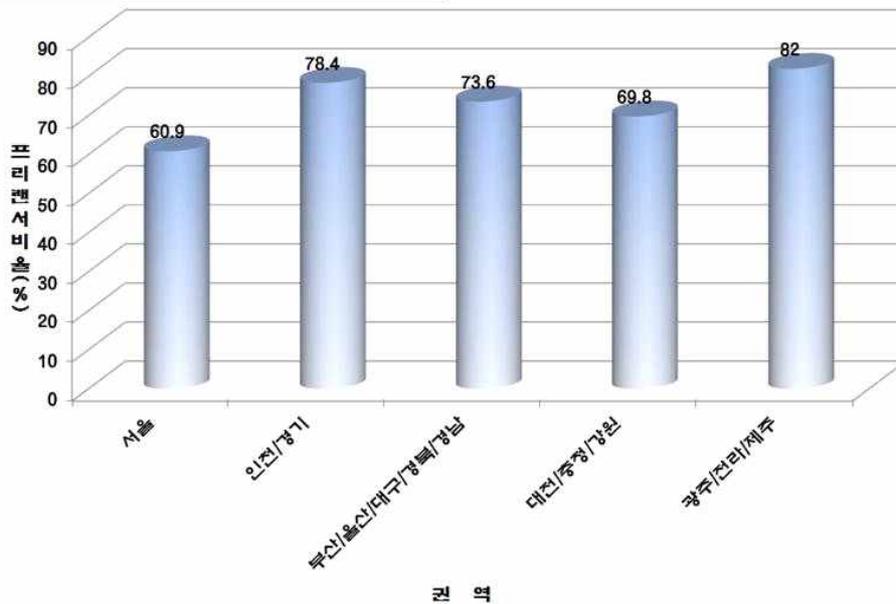
### 예술인 수입 (2015 예술인 실태조사 통계표 가공)



-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서울 21%, 호남권 59%에 이르고 있음
- 소득 2,000만원 /연 미만 비율
  - 서울: 73.3
  - 호남권: 84.7%
- 분야별로 건축, 방송의 예술활동 수입이 많아 전체 평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다른 예술분야는 평균 1천만 원 미만이 대부분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술활동 수입의 중앙값은 연 300 만원에 불과
- 전업예술인 비율 낮아짐
  - 수도권과 경상권 50% 상회, 대강권과 전라권은 50% 하회

## 예술인 실태

### 고용형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통계표 가공)



# 공연예술 시장현황

## 시설 및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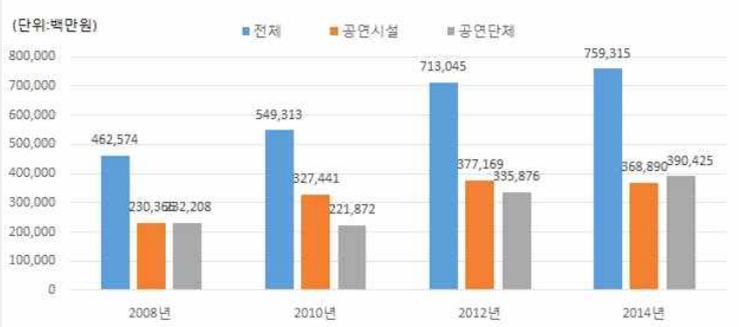
- 공연시설, 공연장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
- 반면 공연단체는 200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2014년 증가
- 활동단체 수는 2008년보다 적음



- 종사자의 80% 이상이 단체에서 활동
- 공연시설 종사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 공연단체 종사자 역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보임

# 공연예술 시장현황

## 매출액



- 전체적으로 2010년 이후 증가세
- 공공 시설 매출액의 지속적 증가와 민간 시설 매출액 하락
- 공연단체 매출액의 지속적 증가
- 단체 매출액이 시설 매출액 추월(2014년)

구분	매출액 (A=B+C)	자체수입(B)					기타수입 (C)	
		합계	작품판매 수입	티켓수입	공연출연료	기타 공연사업 수입		
전체	390,425	387,347	57,396	193,587	99,341	23,945	13,078	3,078
국립	12,235	11,687	1,581	3,653	4,136	1,104	1,214	548
공립(광역)	6,597	6,414	0	4,073	2,112	72	158	183
공립(기초)	2,367	2,359	23	767	1,539	16	14	9
민간공연단체	121,417	119,119	7,378	30,546	60,730	11,706	8,758	2,298
민간기획사	247,808	247,768	48,415	154,547	30,824	11,047	2,935	40

## 공연예술 시장현황

### 재정상황

	전국	전라권
총수입	8,524억원	-
총지출	8,503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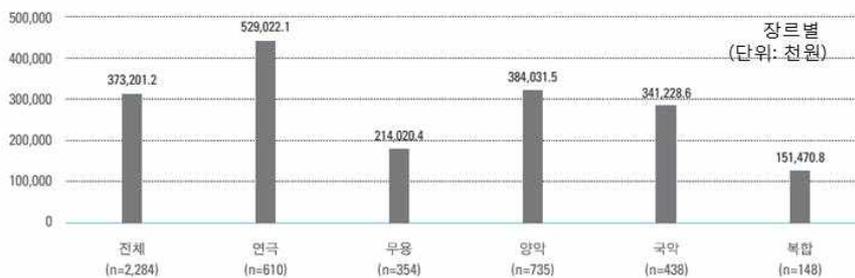
	전국	전라	비고
연평균수입	373,201천원	480,256	제주권에 이어 2위
연평균지출	372,286천원	476,446	제주권에 이어 2위

- 연평균 수입에서 서울(483,565천원), 경기/인천(311,928천원)권 보다 높음
- 연평균 지출에서 서울(442,048천원), 경기(294,781천원)권 보다 높음
- 특징: 전체 권역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권에서 자체 수입의 50.8%가 공연출연료임
- 반면, 서울은 티켓판매수입비중이 56.3%
- (전국) 티켓판매 비중이 높은 장르는 연극(61.2%)
- 공연출연료 수입 비중이 높은 장르는 무용(50.6%), 국악(65.5%), 복합(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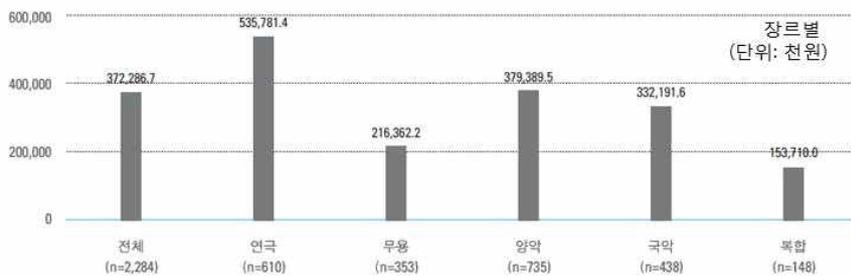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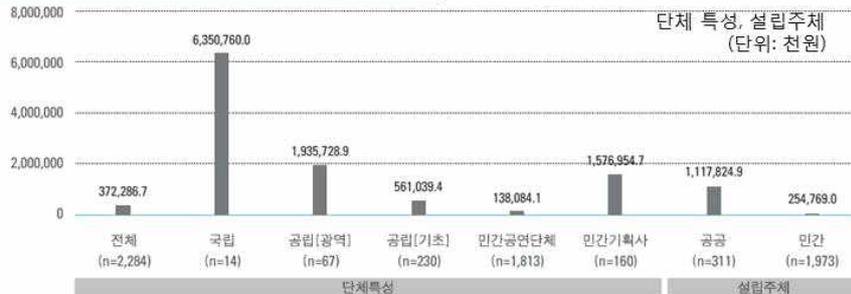
## 공연예술 시장현황

### 연 평균수입



## 공연예술 시장현황

### 연 평균수입



## 공연예술 시장현황

### 공연실적

구분	2014년	'14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수	증감률(%)
공연시설	공연건수(건)	47,489	2,291 / 5.1
	공연일수(일)	156,147	36,805 / 30.8
	공연횟수(회)	200,228	1,763 / 0.9
	관객수(명)	37,667,737	△1,988,823 / △5.0
공연단체	공연건수(건)	45,308	6,266 / 16.0
	공연일수(일)	96,403	△2,096 / △2.1
	공연횟수(회)	119,968	2,115 / 1.8
	관객수(명)	36,879,753	△1,331,649 / △3.5

수익 창출 구조 등 공연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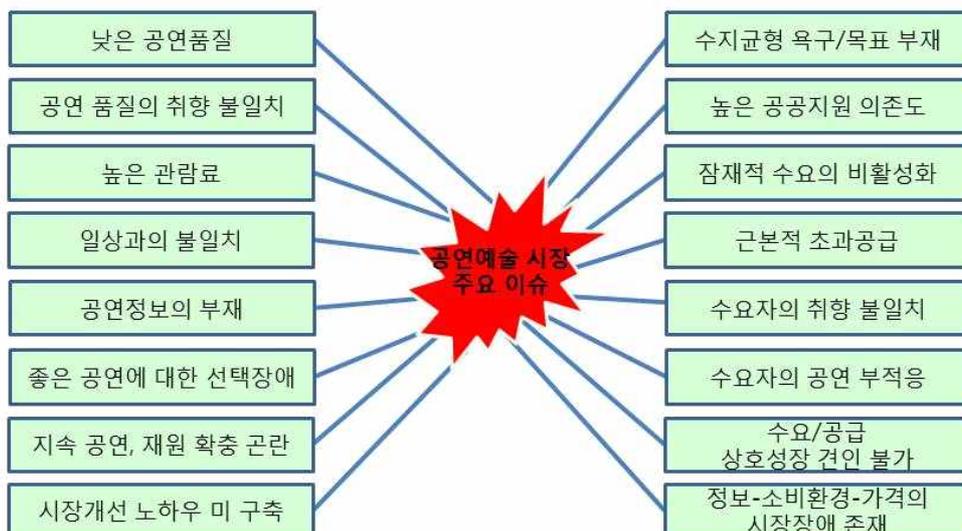
## 공연예술 시장현황

### 시장에 대한 공연예술 단체의 시각

<p><b>흥행 가능 공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과 형식의 완성도</li> <li>▪ <b>입소문, 브랜드파워, 물량공세적 선전(연극), 브랜드파워</b>, 입소문의 효과 낮음(무용)</li> <li>▪ 연극의 부정적인 면모를 개선에서 상품성과 시장성 개선 가능</li> <li>▪ 예술성과 상업성의 조화</li> <li>▪ 일반인이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성격의 예술성을 발견하는 것이 극단의 성공요인</li> <li>▪ 같은 공연이라도 <b>'좋은 기획자의 손'</b>이 중요(관객의 니즈 파악, 극단 운영에 반영)</li> </ul>
<p><b>자생력 증진 노하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만원 이하의 저예산 공연 병행, 회원제, 연간 티켓 프로그램 운영(연극)</li> <li>▪ 공연자체가 아닌 <b>응용활동(상품)</b>을 수익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자생에 근접(무용)</li> <li>▪ 커뮤니티 프로그램(공연장과 연계한 교육) 개발 및 확대</li> <li>▪ 높은 교습성에 기초하여 고객의 직접체험과 관람체험의 상승을 도모에 중요</li> <li>▪ 지속적인 레퍼토리 개발, 연주기술과 효과에 새로운 시도를 통한 <b>대중화(국악)</b></li> <li>▪ 고정고객 증가가 첫걸음(소수의 매니아, 팬클럽 등이 중요)</li> <li>▪ 상업성, 대중화, 제한적 물입을 통한 <b>관객 접점의 개선</b>: 예술성,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님</li> </ul>
<p><b>지원·후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곤하지만 <b>매우 중요</b>(매출 : 지원 = 2 : 8)하나 <b>안정성 없고 부익부 빈익빈</b> 현상 만연</li> <li>▪ 제안서 작성 능력의 차이, 수혜경험이 영향을 미치기도 함</li> <li>▪ <b>등급 내 경쟁</b>을 통해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li> <li>▪ 공연단체에 대한 <b>경영지원</b>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li> <li>▪ 기존 직접지원 예산의 배분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시행</li> <li>▪ 컨설팅 사업은 공연예술계가 아닌 <b>비즈니스 전문가의 컨설팅</b>이 현실타개와 단체 혁신에 도움</li> <li>▪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고 소멸되는 공연이 되지 않도록 외부의 도움 필요</li> <li>▪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재정지원; 항공료 등, 재정보증)</li> </ul>
<p><b>활성화 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자의 독특한 코드에 대한 관객의 이해 필요, <b>초기경험(적합한 공연 관람)</b>이 중요(연극)</li> <li>▪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연을 경험하면서 공연예술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음</li> <li>▪ 사소한 사건들의 집합이 근본적인 제약요인이 되기도 함</li> <li>▪ <b>기획자</b>와 공연단의 집중력 있는 공연개발(무용)</li> </ul>

## 공연예술에 대한 문제의 인식

### 공연예술 관련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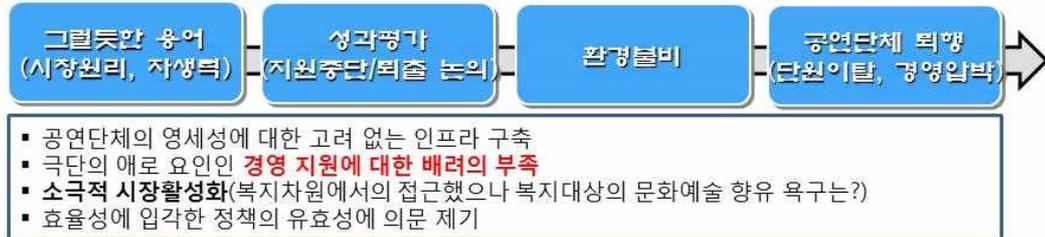


## 공연예술에 대한 문제의 인식

### 정부의 정책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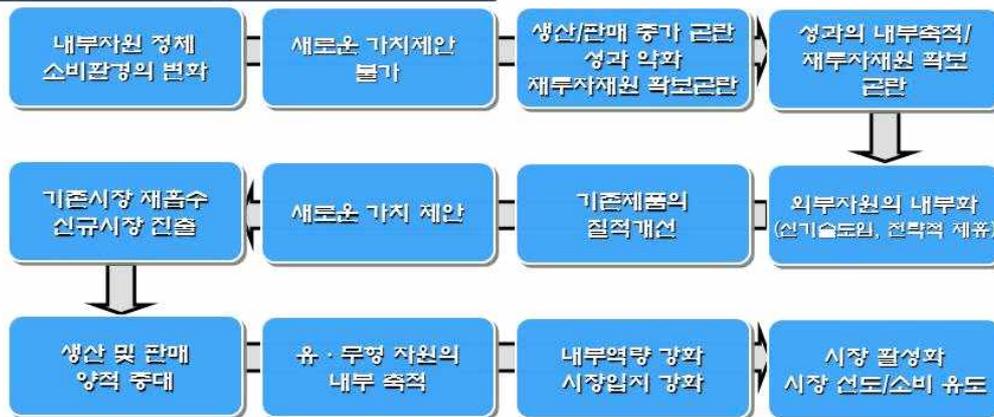
문화부의 전망	산업화	국제경쟁력 강화	장르융합/다원화	향유/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 지원방향	문화인프라 구축	창·제작지원	예술가 육성	문화복지를 통한 문화소비자지원
제조업 분야 지원목표	산업인프라 구축	R&D 지원	인력양성	기업지원
공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예술단체(기업)의 <b>자생력</b> 확보</li> <li><b>시장원리</b>에 충실한 공연(제품)시장의 운영효율성 극대화</li> </ul>			

### 현실에서의 결과



## 공연예술에 대한 문제의 인식

### 제조업(상품)의 문제인식과 해결방법



### 공연예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

- 공연작품(상품)의 관점
- 공연단체(공급자)의 관점
- 시장(수요와 공급)의 관점

## 공연예술에 대한 문제의 인식

### 공연작품(상품) 관점의 이슈

공연작품의 양과 질이 증가했지만, 공연을 보는 관객 수는 특별히 증가하고 있지 않음

기대수준 이하의 공연품질	작품과 관객의 취향 불일치	부담스러운 관람료	비평의 부재 결정장애 미해소	공연감상을 위한 여건 불비
---------------	----------------	-----------	-----------------	----------------

### 공급단체(기업) 관점의 이슈

공연활동과 경험의 누적을 통해서도 공연단체가 손익을 맞추기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기 어려움

활동 지속에도 자원 미확충	시장성 개선 노하우 미확보	수지균형에 대한 의욕 상실	공공지원 의존성
----------------	----------------	----------------	----------

### 수요와 공급의 균형 관점의 이슈

수요와 공급이 서로를 견인하는 보완적 기능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근접하지 못하는 상태

수요잠재력 미활성	공급초과 동시다발 공연	공급자와 관객간 지향점/취향불일치	수요자 부적응	공급과 수요 매개 정보 부재
-----------	--------------	--------------------	---------	-----------------

## 공연예술에 대한 문제의 인식

### 문제의 재정리

수요와 공급 부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물과 관객 욕구의 불일치</li> <li>소비되어 효익을 주지 못하고 소멸되는 공연이 다수 존재</li> </ul>
시장기능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관련 정보획득이 용이성, 풍부성 부족으로 선택 제한</li> <li>관람을 위한 시간과 장소 등과 같은 여건이 중요</li> <li>적극적 소비를 유도하는데 제약이 강한 여건(생활 형편)</li> </ul>
수요공급 연계성장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 내용, 전달 방식의 개선</li> <li>경험자의 적극적 관람 욕구 제고(전체 또는 특정 장르)</li> <li>잠재수요자의 부적응</li> </ul>
수지균형 촉구/목표의 빈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 및 파생사업의 지속적 전개를 통한 수입지출 균형 달성</li> <li>공극적으로 흑자경영 달성</li> <li>비즈니스 운영주체로 성장하려는 강력한 동기와 실천력 필요</li> </ul>
자원/시장성 노하우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에 대한 의존 경향의 대두와 의존성의 고착화</li> </ul>
외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적 공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나 사용 후 소멸</li> <li>단체 스스로 생산역량, 시장역량을 갖게 하는 원동력은 아님</li> </ul>

## 공연예술에 대한 문제의 인식

### 수요공급 부조화의 시장요인

- 공연예술 소비에 있어서 성장 정체
  - 작품수, 공연회수 증가에도 관객 수 정체, **관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공연되는 작품이 많음**
- 소비촉진이 어려운 시장환경(잠재수요 비활성화)
  - 현상: 희망 관람을 대비 실제 관람을 비율이 **50% 미만**, 잠재적 소비자의 포기과 이탈
  - 방해요인: ① 대체재 대비 높은 관람료, ②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③ 관람을 위한 시간과 장소 제약

### 수요공급 부조화의 극단요인

- 지향점
  - 내용과 수준 난해: **높은 문턱**을 형성하여 **일부 매니아 층**을 제외하고 타겟 설정하지 않음
  - 예술성에 대한 관점: 예술관객 욕구 충족형 공연과 **예술 본연의 색 상실**을 동일시
- 브랜드 개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지휘자·단장·공연자의 유명세 활용을 특정인에 대한 의존성으로 해석
  - “우리 극단은 그런 구성원이 없어서 벤치마킹 해도 시장성을 높일 수 없음”, **“예술성만 훼손”**
- **자생불가론**(문화경제학)이 시장성 확보 노력을 포기하는 논리적 기반으로 작용
  - **티켓만으로 공연비용 충당 불가**
  - 공공부문에서의 **무료공연** 증가 -> 유료공연에 대한 관객의 외면, 관람료 현실화 불가
  - 자생력 확보는 **새로운 실험과 공연 시도**에 있다는 인식

## 공연예술에 대한 문제의 인식

### 원인의 재조명

문제점	원인
수요공급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수급 경험에서 비롯된 <b>의존성</b>-&gt; <b>관객 창출 노력 등한</b></li> <li>▪ 시장성 확보를 위한 <b>자원·전략의 부재</b></li> </ul>
시장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내용과 전달방식이 관객 유인에 불충분하고 부적당</li> <li>▪ 수요자의 지불능력, 기대수준 대비 <b>관람비용 과다</b></li> <li>▪ 공연시간의 제한, 장소의 불편성, <b>무료공연</b></li> </ul>
수요공급 상호견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의 <b>초기경험 부적절</b></li> <li>▪ 공연예술에 대한 기초적 <b>이해 수준</b> 낮음</li> <li>▪ 교육으로 해결 불가(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성공 곤란)</li> </ul>
수동적 수익창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험요인</b>의 영향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객 수 감소, ② 일부에 한정된 관객과의 소통, ③ 대체재와의 격차</li> <li>④ 수익성이 없는 공연에 대해 애호가도 감사해야 할 지경에 이른 시장 현실 등</li> </ul> </li> </ul>
재원확충 노하우 비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구조 단순: 지원금도 모두 소비하고 정산, 내부축적 불가</li> <li>▪ 소규모성에 따른 <b>규모의 경제 향유 불가</b></li> <li>▪ 고비용 공연제작 구조 지속</li> <li>▪ 강력한 브랜드 파워 형성 곤란</li> <li>▪ <b>전문기획자 부재</b>에 따른 <b>시장 전략 수립</b> 역량 제한</li> </ul>

# 공연예술에 대한 문제의 인식

## 상황 탈피를 위한 대안

- **관객개발**
  - 관객 친화형 공연 증가
  - 관람욕구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입소문 요소 개발 및 적용
  - **전문가의 문예비평** 등 작품에 대한 호기심 강화
- **작품 완성도 제고**
  - 외부의 지식, 기술, 자원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무대장치, 조명, 소품 등 몰입도 향상에 필요한 요소의 공공부문 제공(임대) 방식 검토
- **자체 기획인력(작품, 공연, 공공지원사업 참여) 보유**
  - **기획인력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고려
- **수익원 다변화**
  - 체험, 교습 등 **부가사업 시행** -> 관객 + 체험 참여자 => 후원그룹화
  - 체험 및 교습을 위한 소재의 다양성 확보(예; 시민배우 수업 => 작품 출연)
- **브랜드 파워 강화**
  - 정보가 조잡하게 표현되지 않은 세련되고 매력적인 홍보 콘텐츠 활용
  - 공연단 외부인의 관점 및 관점에 대한 이해
  -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
- **운영효율성 개선**
  - 외부자원 풀 활용을 통한 고품질 공연 -> 군소단체 자원 접근성을 개선하여 소재·표현의 한계 극복, 인상적 볼거리 제공 및 관객 흡인력 강화
  - 단체간 제휴를 통한 인력 풀 최적화

# 활성화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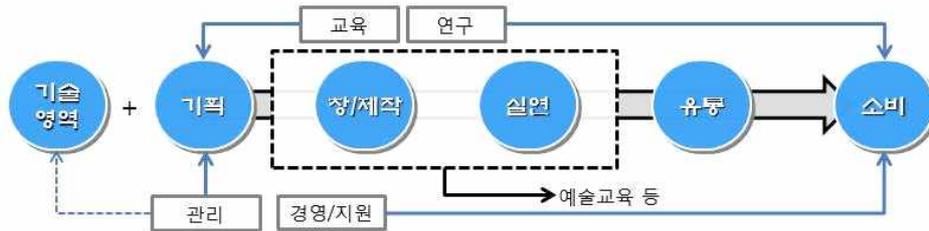
## 궁극적 도달점

<b>융 합</b>	장르간, 산업간 융복합 지향	예술과 기술, 예술과 과학	
<b>확 대</b>	활동 영역 확대	창직	일자리 수 확대
<b>창 의</b>	상상력 존중	창업, 집중지원	인재육성
<b>복 지</b>	창작기반 조성	법/제도 마련	교육훈련

-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사회적 수요의 활용,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도입 및 적용, 예술인 활동영역 확대를 통한 예술인 일자리 확대 및 창출 가능성 극대화
- 예술작업(산업)의 순환과정(생태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세분화를 통한 숨은 일자리 발굴

## 활성화 대안

### 고려사항 1: 가지사슬



### 고려사항 2: 분해와 재구성



## 활성화 대안

### 활성화 대안 1: 예술인 활동영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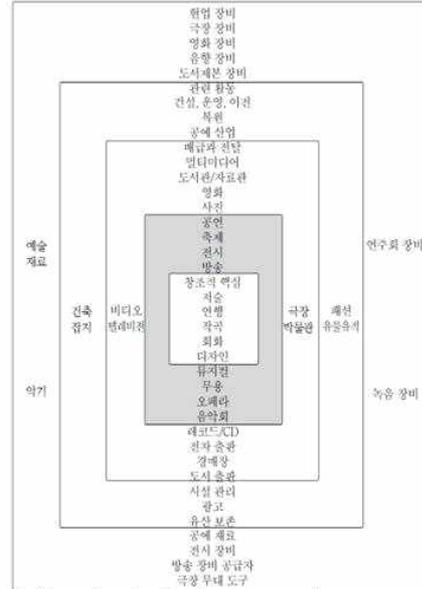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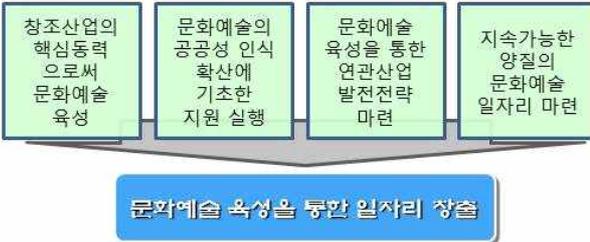
통섭을 통한 내연확대			융합을 통한 외연확대	
활동공간확대	생활문화 연계	지역문화 연계	교육 연계	과학/기술 연계
기획/관리	문화예술 교육/해설/공급인력	기획, 매개인력	교육인력 교육기회	연구/기획 과학+예술매개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기획</li> <li>축제기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교육/창작/실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개발</li> <li>마을사업</li> <li>공공프로젝트</li> <li>기업문화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교육</li> <li>평생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합콘텐츠개발</li> <li>융합창작공연</li> <li>미디어프로젝트 발굴/진행(디지털)</li> </ul>

- 예술인 활동영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창출
- 프로젝트 및 기관 확충 등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활동영역 확대
- 창작/실연가로서의 예술가를 기획/매개인력으로서 가능성 확대(예; 양림동)

## 활성화 대안

### 활성화 대안 2: 정책과 자원 투입

-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음
-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등 연관산업의 핵심동력이 되며 정책 결합도가 높은 산업
- 문화예술 영역은 시장경제에 취약, 정책지원이 필요한 공공영역



출처: British policy for the creative industries  
(사)입법정치연구회에서 재인용

## 활성화 대안

### 활성화 대안 3: 인력/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인력분야	기획, 지원, 경영활동 인력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작지원사업
프로그램 연계형 지원	유관기관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계	인턴제(제조업 분야와 유사한 수준)
공연예술경영지원센터	MKT, 홍보, 회계, 기획 등 인력 보유	팀단위 지원 경영 및 관리 노하우 축적

### 활성화 대안 4: 공공부문 역할 정립

무료공연 최소화	원형발굴 및 콘텐츠 기획인력	민간 공연의 가격경쟁력 저하
모금 활동 저해	공공예산재원바탕의사업 수행	민간단체 후원 확보 경쟁력 잠식

### 활성화 대안 5: 문화원형창조인력 지원

지원대상인력분야	원형발굴 및 콘텐츠 기획인력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신규 일자리 생성
연계 가능성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속사업을 통한 지원대상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안정성 제고

## 활성화 대안 6: 단체 통합 지원





발표문 :

## 민선 7기 문화정책과 기초예술

문 병 재

(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



# 민선7기 문화정책과 기초예술

문 병 재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 I. 민선7기 문화정책

### ① 들어가는 말

- 민선7기가 출범한 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민선 7기 문화 분야 시정 철학은 광주 도심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광주'를 만드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 그 시작으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을 두어 통합적·전문적 시각에서 문화 행정의 창의성, 전문성, 일관성을 제고하여, 문화를 향유 개념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일자리와 상품·브랜드·산업으로 연결해 광주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민선 7기 문화정책이 문화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문화가 광주 미래 경제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과 문화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해 기초예술 분야의 활성화도 염두에 두고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다.
- 광주시에서는 기초예술과 문화산업 분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며, 한 축으로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축인 기초예술 분야에도 지원방안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무한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문화 분야도 또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래서 광주 문화산업 발전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며, 정부나 지자체, 기업체 등이 기초예술 종사자에 대한 창작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으로 기초예술이 창의적이고 지적인 아이디어의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

## ② 광주시 일반현황 및 문화 관련 통계

### 1 기본현황 ('17년 12월말 기준)

- 인 구 : 1,485천명(전국의 2.8%) ※ 외국인 포함  
 ※ 서울(10,124천명), 부산(3,512천명), 대구(2,501천명), 인천(3,010천명), 대전(1,519천명), 울산(1,185천명)
- 면 적 : 501.18km<sup>2</sup> (전국의 0.5%)
- 행정구역 : 5개 자치구, 95개동(행정동)
- 공 무 원 : 7,835명(시 3,490명 자치구 4,345명)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187명  
 ※ 산하단체 : 총 24개(공사.공단 4, 출자기관 2, 출연기관 18) / 1,866명

### 2 재정운영 ('18년 본예산 기준 / 자치구 미포함)

- 예산규모 : 4조 5,139억원 (일반회계 3조 6,696 특별회계 8,443)
  - 자체수입(일반회계) : 1조 5,434억원 (지방세 1조 4,622 세외수입 812)
  - 재 정 자 립 도 : 39.9% (광역시 평균 48.3%)  
 국비확보 : ('15) 1조 6,584억원 → ('16) 1조 7,332억원 → ('17) 1조 8,292억원 → ('18) 1조 9,734억원
- 지방채무 : 9,450억원('16년말 9,550억원 대비 100억원 감소) \* '17년말 기준
- 기 금 : 통합관리기금 등 17종 8,563억원

#### ※ 문화관련 예산 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18 市 예산총액	문화·예술·관광	비 율	비 고
예산총액 기준	4,513,862,563	156,466,075	3.47%	체육 제외
일반회계 기준	3,669,595,425	156,466,075	4.26%	체육 제외

### 3 문화예술 ('17년 12월말 기준)

- 문화시설 : 공공도서관(23개소), 등록박물관(10개소), 등록미술관(11개소)  
 공연시설(47개소), 영화관(13개소)
- 문화재 지정 : 총 153건(국가지정 24건, 시지정 114건, 등록문화재 15건)
- 광주 시립예술단체 : 8개 단체 . 정원 305명  
 - 교향악단, 국극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오페라단
- 작은도서관 : 438개(작은도서관 1개당 인구수 3,342명)

#### 4 문화 관련 통계

##### ○ 문화기반 시설 (775개소)

공연시설 (171)					전시시설 (85)				도서시설 (461)		지역문화 복지시설(48)			문화보급 전수시설(10)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공연장	야외 공연장	영화 상영관 (스크린)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의집	복지회관	청년수련시설	문화원	전수회관	전통문화학교
2	12	24	9	124	10	11	63	1	23	438	5	33	10	6	3	1

##### ○ 문화재 (153건)

국가지정 (24)							시지정 (114)					등록 문화재 (15)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연기념물	중요무형	중요민속자료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2	13	2	1	2	1	3	29	22	24	9	30	15

##### ○ 관광업계 (752개소)

구분	합계	여행업	관광호텔	편의시설업	국회의업	유원시설업
업체수	752	622	14	67	19	30

##### - 여행업

구분	합계	일반	국외	국내
업체수	622	85	285	252

##### - 관광호텔

구분	합계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등급미정
업체수	14	2		3	1	7	1
객실수	1,059	325		228	59	410	37

**5** 문화산업 현황

(’16년 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

구분	업체수(개소)			매출액(백만원)			종사자(명)		
	전국	광주	비율	전국	광주	비율	전국	광주	비율
계	105,790	3,499	3.3	105,324,417	975,916	0.9	596,503	11,857	2.0
출판	25,452	780	3.1	20,765,878	275,276	1.3	149,057	3,127	2.1
만화	7,726	308	4.0	976,257	25,279	2.6	10,127	374	3.7
음악	37,501	1,370	3.7	5,308,240	22,650	0.4	79,393	2,292	2.9
게임	12,363	538	4.4	10,894,508	73,773	0.7	73,993	2,281	3.1
영화	1,398	15	1.1	5,256,081	82,448	1.6	28,974	590	2.0
메이션	447	27	6.0	490,631	28,534	5.8	5,142	217	4.2
방송	944	16	1.7	17,331,138	157,076	0.9	43,652	641	1.5
광고	7,229	217	3.0	15,189,680	56,261	0.4	65,072	675	1.0
캐릭터	2,213	57	2.6	11,066,197	105,861	1.0	33,323	402	1.2
지식정보	8,719	143	1.6	13,462,258	81,998	0.6	80,396	848	1.1
콘텐츠 솔루션	1,798	28	1.6	4,583,549	66,760	1.5	27,374	410	1.5

### ③ 민선7기 문화 분야 공약사항

#### 목 표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 만들기



#### 6대 과제

1. 대한민국 문화수도 조성
2. 아시아문화전당 기능 개선
3. 광주의 전통문화시설 확대 건립
4. 첨단 실감콘텐츠산업 대표도시 육성
5. 국제관광도시 육성
6. 문화행정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약실천과제 세부실행계획(안)

1. 온리온(ONLY ONE) 전략을 통해 광주만의 관광상품 개발
2.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3. 광주관광 전담기구 설립
4.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5. 5.18 민주화운동 문화콘텐츠 제작
6. 남북소리명창대전 매년 남북한 교차 개최
7. 광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적 재편
8. 연중 문화행사, 거리축제가 열리는 문화난장 추진
9. 아시아문화원 연계성 제고 및 운영체계 조정
10. 문화전당 킬러콘텐츠 생산 및 프로그램 확대
11. 아시아문화원 체험공간 확충
12. 금남로, 광주천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활용
13. 문학관 건립
14. 역사박물관 건립
15. 국립국악원 광주 유치
16. 광주만의 특별한 문화콘텐츠 제작
17. 조성 미래오감 콘텐츠 개발 중심지 육성
18.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19. 문화부시장제 도입
20. 임동 일대 문화관광 스포츠 거점 조성
21. 아시아문화전당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22. 동명동 일대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

#### 4] 공약 6대 과제

---

##### (1) 대한민국 문화수도 조성

---

###### ◆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편하여 문화가 넘쳐흐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자리매김

- 다양한 문화시설, 고유하고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 도시곳곳에서 연중 개최되는 문화행사, 풍부한 문화산업과 일자리, 시민들의 높은 문화행사 참여도 등 광주만의 모습, 느낌,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광주를 문화적으로 재편
  - 경관도시건축 등 도시공간과 시설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문화적으로 디자인
  - 보도, 승강장, 벤치, 간판 등 가로시설물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담아 설치
  - 광주관문인 송정역과 버스터미널에 고유의 문화상징을 설치하고 체험공간 마련
- 시민이 문화소비자 겸 생산자가 되고 도시 곳곳에서 연중 문화행사와 거리축제가 열리는 문화난장을 만들어 볼거리 느낄 거리 제공
  - 전문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는 성격이 맞는 시민축제를 개발 결합시켜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
  - 총장 축제, 김치축제, 프린지페스티벌,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 행사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소규모 청년 예술공연단, 길거리음악과 퍼포먼스, 시민문화 예술동아리 육성 등을 통하여 생활공간 곳곳에서 전시·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시 공간 확충

---

##### (2) 아시아문화전당 기능 개선

---

###### ◆ 아시아문화전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콘텐츠,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고, 아시아문화의 연구, 교류, 체험의 국제중심지로 육성

-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및 기능 조정
- 시민이 즐겨 찾는 킬러콘텐츠를 생산하고 대중이 관심 갖는 프로그램 대대적 확대

- 아시아문화를 직접보고 체험하는 공간을 확충하고, 국내 아시아인들의 참여와 역량 제고 방안 마련
- 금남로와 광주천에 문화예술을 입혀 문화전당권의 핵심활동공간으로 활용

### (3) 광주의 전통문화시설 확대 건립

#### ◆ 문학관, 역사박물관, 국악당 등을 건립하여 광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소개하여 찾아오는 광주를 조성

- 문학관 : 지역의 훌륭한 문학작품과 5월 문학 등을 소재로 남도의 문학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 건립사업 계획(안)

- 사업기간 : 2018 ~ 2022 (5년)
- 추정규모 : 부지 2,778㎡, 연면적 4,930㎡(지상4층)
- 위 치 : 광주광역시 일원
- 추정예산 : 15,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11,000)
- 사업내용 : 전시관(유품, 문학사, 기획전시), 창작실, 체험관, 영상실, 문학교실, 수장고, 사무공간 등
- ※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중

- 역사박물관 :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광주의 정신과 역사를 전시하고 학습

#### 광주역사박물관 건립사업 계획(안)

- 위 치 : 북구 서하로 48-25 시립민속박물관 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2,655㎡, 건축연면적 7,076㎡ (지하1층, 지상2층)
- 사업기간 : 2018. 1. ~ 2019. 12.
- 총사업비 : 9,400백만원(국비 3,760 / 시비 5,640)
- ※ 현재 전시 설계업체 공모 중

- 국악당 : 판소리와 국악 상시 공연, 시민교육과 체험의 장 제공
  - 국립국악원 광주 유치

---

#### (4) 첨단 실감콘텐츠산업 대표도시 육성

---

◆ **광주만의 특별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고 '첨단 실감콘텐츠산업 대표 도시'로 육성**

- 신창동 선사농경문화, 마한·백제문화, 음식문화, 5.18민주화운동 등 원천소재를 바탕으로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창작자들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브랜드 작품 제작
- 송암산단에 첨단실감클러스터를 조성하여 AR, VR, MR 등 가상콘텐츠, 홀로그램 등 미래오감 콘텐츠개발 중심지로 육성
  - 기존의 CGI센터, 나주혁신도시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실감 콘텐츠의 메카로 육성
    - \*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컴퓨터영상합성기술.
    - \*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MR(혼합현실, Mixed Reality)
- 문재인정부 지역공약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연구원)을 설립하여 융복합콘텐츠 연구 개발

---

#### (5) 국제관광도시 육성

---

◆ **군 공항 이전부지에 스마트시티와 함께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설치하고, 관광진흥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광주관광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문화가 선도하는 국제관광도시로 육성**

- 테마파크는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유일의 국제적 놀이시설이 되도록 조성
- 광주관광 전담기구 설치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획자 양성 토대 마련
- 광주의 정의로움, 풍부한 문화예술자원, 남도음식문화 그리고 전남의 자연풍광을 엮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하여 아트투어리즘을 활성화
-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인근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MICE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 & Event)

---

(6) 문화행정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 **문화부시장을 임명하여 문화행정의 창의성, 전문성, 일관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전문적 시각에서 문화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문화행정시스템 확보

## Ⅱ. 기초예술

### ① 기초예술의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

-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통상적인 정의

- "**기초예술**"이란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사진, 국악 등 비상업적 성격을 띤 예술을 말한다.
- "**기초예술인**"이란 기초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예술진흥**"이란 기초예술이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한다.
- "**메세나**"란 커다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 2 광주예술인 백인보 프로젝트(광주기초예술활성화정책보고서/광주문화재단/2017년)

### ○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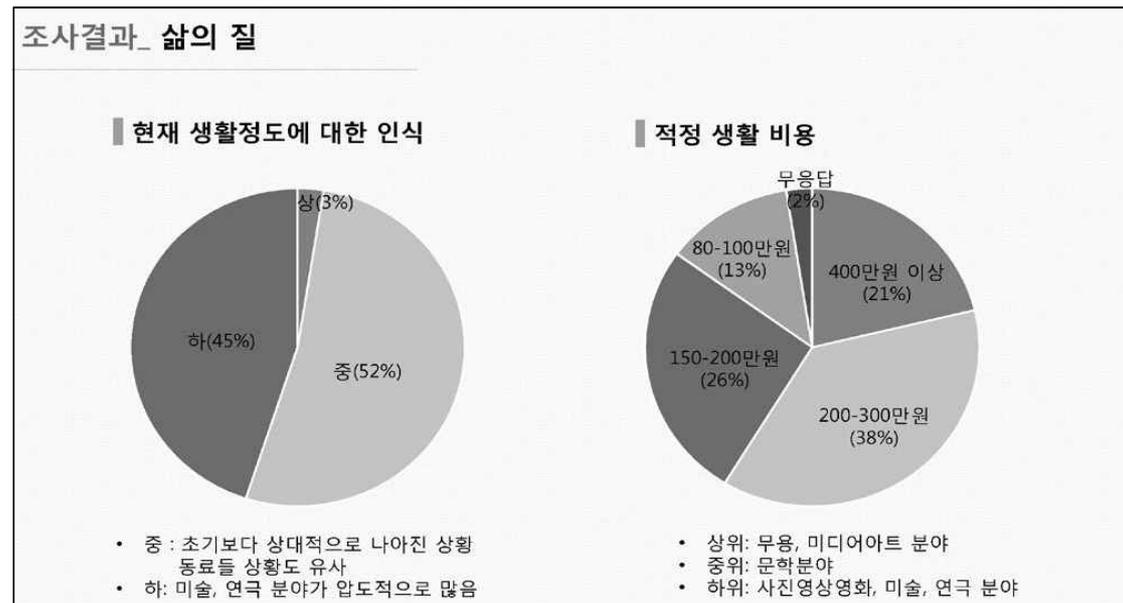
**■ 연구명**  
2017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 - 광주예술인 백인보(百人譜) 프로젝트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생활과 밀착한 풀뿌리 지역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술인이 지역에 착근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정책이 필요
- 예술가의 생애경험에 대한 구술조사를 통해 기존 문헌기록과 정량조사의 공백과 한계를 보완, 구체적 맥락이 제시된 자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광주예술가 100인의 삶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장르별 예술가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문화지원 정책을 도출

**■ 연구기간**  
2017년 9월 8일 - 2017년 12월 31

### ○ 조사결과



조사결과_ 예술정책(활동의 어려움)				
구분	순위	주요이슈	내용	도출
공통 이슈	1	경제적 어려움	① 경제수단으로서의 기타활동 증대 : 교육활동 증대 ② 전체연습의 일정 조율 어려움 ③ 공모사업 중심의 운영	공연의 질 저하 현상 창작활동의 패턴 변화 → 경제활동 중심
	2	창작공간 마련 및 운영	①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방안 모색 필요
	3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①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 증대 ② 경력의 인증 및 연결성 미흡	공적보육시스템 및 제도 필요
기타 이슈		인력 단절 현상	① 세대 간의 단절현상(심리적 불편함) ② 신진 예술인들의 공연제작에 대한 욕구 증대 ③ 기타 프로젝트형(통합형) 창작활동 증대	지역 예술인 활동 네트워크 지원
		지역 문화 환경	① 공공기관 무료공연 증대로 인해 지역 유료 공연에 대한 시민의식 부재 ② 장르별 편차 심화현상 : 인프라 부족	장르별 지원 방향의 다양성 모색
		단체운영의 어려움	① 조직관리의 어려움 ② 대표의 경우 행정, 기획, 제반업무의 양 증대 ③ 지원금 중심의 운영구조 및 패턴화 현상 ④ 창작활동을 위한 지속적 관계유지의 어려움	단체 역량강화 지원방향 모색

○ **창작만으로는 경제 상태가 불안정하다.**

초기의 예술가들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갔지만 현재도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10%만이 상위 경제생활을 이룰 수 있었고, 상당수(71%)가 중하위로 예술강사, 교육, 행사활동, 아르바이트, 배우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예술가들의 지역 예술 활동의 어려움**

타 지역 이전 의사에 대해 묻자 64%가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광주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부심'이 많이 언급됐는데 광주 예술가들은 역사적 정체성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

이전 의사가 있는 예술가들은 지역예술가들의 텃새, 환경기반 부족, 좀 더 나은 역량과 활동, 넓은 시장 등의 사유를 말했고 이 중 신진 예술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시민들의 관심 부족도 언급했음.

○ **지원방식의 문제점**

예술 창작물은 1~3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나, 대부분 지원사업은 1년 단위 지원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창작 과정보다는 결과물 중심의 지원, 공연 내용의 수준과 맞지 않는 소액의 지원금으로 예술가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개선방안) 지역 기초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양질 전시·공연 작품 등 육성 방안 마련

- ① 지역 예술인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등 개최) ② 양질의 전시·공연 등 작품 발굴 ③ 상설공연장, 전시장 등 창작 공간 확충 ④ 광주지역 대표 전시·공연 브랜드로 육성

○ 광주시의 역할 제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 지역적 특색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비전 제시

-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 정책의 장기적 비전 수립
-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생태계 서식지 구축

⇒ (개선방안) 광주문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2030('18.5.16.) 및 민선7기 문화정책과 연계한 광주만의 창조적인 문화비전 제시

-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문화정책 전문가 영입 및 육성
-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 강화

⇒ (개선방안) 문화경제부시장 임명과 의견수렴 및 소통의 장 「문화난장 토크」 개최

문화경제부시장 직제 신설로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와 함께 문화예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예술기관·단체와 문화기획자, 현장활동가,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 의견 수렴을 통해 광주시 문화정책 반영 추진

- 문화사대주의 탈피

- 지역 예술가에 대해 배제적인 태도 지양
- 신진, 중견 지역예술가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개선방안)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대로 지역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공간 및 장소 제공

○ 정책 제언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연구책임자)

- **다장르 융합창작공간 지원** :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활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창작공간 조성 【(예시) 경기창작센터, 인천아트플랫폼】
-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의 안정성 확보 및 환경기반 구축 【(예시) 부산의 또따또가, 창원의 창동예술촌】
- **신진 예술가 인큐베이팅 지원** : 신진 예술가에 대한 창작공간 및 장비, 컨설팅 지원 등 【(예시)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제주문화예술재단)】
- **맞춤형 슈퍼바이저 지원** : 결과중심에서 제작과정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 **광주문화예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연·전시·출판 등 장르별로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포함)를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예술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19년 예산반영 검토 중

③ 광주시 기초예술 지원 사례

---

(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

◆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상주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 제공으로 공연장 가동률 향상 및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 창작 및 공연활동 전문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공연단체가 공공공연장과 MOU 체결 및 신청
  - 공연단체가 지원신청, 심사 및 지원금 교부
- 운영방법 : 공모심사
- 지원현황 : 6개팀(음악 3팀, 연극 2팀, 무용 1팀)
- 사업비 : 672백만원(기금 336, 시비 336)

---

## (2)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 (레지던스프로그램) 시각예술, 사진, 건축, 문학 등 모든 장르의 레지던스프로그램
  - (지역특화문화거점) 자치구별 문화거점 발굴 및 지역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교류지원)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중 국내외 교류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 (지역문화예술육성) 전문예술단체,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및 창작역량 강화 도모
- 운영방법 : 공모심사
- 지원현황 : 196개 단체
  - 프로그램 : 7개 단체 / 지역특화 문화거점 : 14개 단체
  - 문화예술 교류지원 : 10개 단체 / 지역문화 예술육성 : 165개 개인·단체
- 사업비 : 2,062백만원

---

## (3) 야외 상설 브랜드 공연 창작 지원

---

### ◆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창작 초연 작품의 공연 지원을 통해 지역 브랜드로 정착되고 관광 자원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 창작초연 제작물을 전당주변 야외 공연장에서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 및 예술단체 지원
- 운영방법 : 공모심사
- 지원현황 : 10개 단체
- 사업비 : 180백만원

---

## (4) 청년미술작가 작품전시 공간 지원

---

- 사업기간 : 2018. 11월경
- 사업내용 : 청년미술작가 작품전시 공간 제공(국제미술전람회 때 동시 진행)
- 지원현황 : 모집 중(\* 2017년 60명 청년예술가 지원 실적)
- 사업비 : 40백만원

**(5) 청년 작가 지원**

- 사업기간 : 2018. 10. ~ 12월
- 사업내용 : 참신한 청년작가를 선정, 창작활동비 지원
- 지원현황 : 공모·심사 예정
- 사 업 비 : 15백만원

**※ 문화예술 장르별 예산 지원현황 (문화예술진흥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장르별 지원사업 예시
	건수	예산액	
계	82	7,546	
미술	19	2,937	- 미디어아트, 서예 포함 - 비엔날레 출연금 미포함('18년 39억 / '17년 18억)
음악	17	1,496	- 정율성음악축제 355백만원 - 오월창작가요제 200백만원
국악	11	1,071	-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개최 480백만원 - 임방울국악진흥회 지원 160백만원
연예	9	790	- 예술인아트페스티벌 개최 260백만원 - 찾아가는 실버예술단 150백만원 - G-POP페스티벌 100백만원
문학	12	560	- 문학인협회 90백만원 - 문인협회 등 60백만원 - 시민참여예산 200백만원
연극	6	430	- 애꾸눈광대 210백만원 - 평화연극제 100백만원
사진	6	137	-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52백만원 - 광주전국사진공모전 20백만원
무용	1	85	- 전국무용제 참가
건축	1	40	- 건축대전

\* 작성기준 : 9개 장르별 작성(장르에 속하지 않는 사업 작성 제외)

#### ④ 광주시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

##### ○ 기초예술가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충

- 기초예술은 개인이나 단체의 창작 작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그 예술 활동의 창작물은 일상생활 또는 산업이나 경제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초예술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① 기초예술가의 창작지원금과 활동보조금 확대(공모 형식 보조금)
- ② 기초예술가 창작 공간 확보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확대
- ③ 국내외 문화교류 지원 확대(기초예술가의 체험학습, 교육기회의 장 제공)
- ④ 신진 기초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⑤ 문학과 음악, 미술 등의 분야가 융·복합하여 진행되는 창작 작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⑥ 시립예술단 운영 : 교향악단 등 8개 단체(단원수 305명)

#####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예술의 생활화 사업 추진

- 기초예술의 토대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창작자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의 생활화를 통한 시민들이 기초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

- ① 시민과 함께하는 기초예술학교 운영 : 기초예술 아카데미, 창작자와의 대화 등
- ② 각종 예술대회(독서, 미술, 음악 등) 개최를 통한 기초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 ○ 기초예술의 메세나 운동 활성화

-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기초예술 분야 전시와 공연 등에 찾아올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후원의 밤 행사 개최를 통하여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 마련(문화재단)

## 5 맺는 말

- 국내 문화산업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 대중문화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돋보인다.<sup>1)</sup> 그러나 기초예술 분야는 점점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 관람률은 1990년 33.4%에서 2017년 64.0%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증가가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문화산업 성장과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 그러나, 문화예술 부문별로 관람률을 살펴보면, 영화 관람률이 58.8%로 가장 높고, 무용 관람률은 1.3%로 가장 낮아서 기초예술과 대중문화 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예술의 뿌리이며 원천인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초예술 기반시설 확충 방안으로 광주문학관 건립과 국립국악원 광주 유치 등 하드웨어 시설 구축과 함께 다양한 부문의 문화예술 관람 증진을 통해 기초예술과 대중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초예술 분야에서도 '방탄소년단'과 같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예술인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기초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예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기초예술은 사회적 공공성을 지닌 자산이며,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문화적 토대라 할 수 있다. 광주시의 기초예술 진흥정책은 궁극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살고 있다는 기초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창작활동 지원과 격려, 문화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2017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 매출액 2013년 91.2조원 → 2017년 110.5조원



# 토 론 문



# 민선 7기에 던지는 제언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작년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예술인 백인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개별 인터뷰였다. 인터뷰이와 약속을 잡고 만나 다양한 지역문화의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용을 공유할 동의서를 받고자 했다. 사전 공지를 못한 내 잘못이었지만 이야기는 이야기고, 관계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몇분을 만났다. 결코 허투루 비껴갈 얘기가 아님에도 탑재할 수 없는 지역의 관계. 그 관계는 행정과의 관계,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인냥 하면서도 결코 그렇지 않은 단체의 뒷심이 무서운 탓이었다. 오늘 나는 또 지역에서 멀어질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기 나왔다. 출신이 한미하기 때문에 물불 안가리는 성정 탓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 광주의 문화계는 인적 생산능력을 상실한 땅임을 자인해야 한다.

그 많은 예술대학을 가지고 있어도 예술인 스타 한명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그 많은 미술관련학과를 가지고 있고, 기획과정과 큐레이터 과정을 가지고 있어도 광주 출신의 큐레이터가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 하나를 박차고 나갔던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예향이나 의향이나 미향이나 다 사람의 얘기인데, 옛 사람은 있는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호명되지 않는 땅이다. 아직 어려서, 아직 세상을 몰라서, 아직 경험이 미숙해서, 출신이 모호해서, 뒷배가 없어서 등등 그들이 호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50대와 40대가 이 모양인데, 30대 20대는 핏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다. 적어도 광주의 문화판을 들썩거리는 분들에게는 아직 그들이 현역이다. 거기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계보도도 한 몫을 하고, 아직까지도 고등학교의 출신을 따지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낡은 구습에 얽매일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지기도 하다. 그러니 시민단체는 인력 수급 능력을 잃어버리고, 문화단체는 더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이럴 때는 학력이 되었든, 자본 능력이 되었든, 직장능력이 되었든 이와 동등한 권력을 지닌 곳이 기세등등하고, 이것을 컨트롤만 하면 광주사회는 끝나가기 쉽게 된다.

피로 일어선 광주니까 자존감으로 버티는 광주니까 더 후진들에게 소중히 물려주어야 할 공동체이지만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이러다가 광주가 세대단절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닌지를 고민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문화수도가 되고자 한다면 수도라는 말을 버리면 된다. 수도라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인해 우리는 많은 문화계의 동지를 잃어 버렸다. 수도라는 말 때문에 전주는 아시아 문화예술의 심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수도라는 말로 경주와 부여와 전주가 발끈하면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발목이 잡혔던 쓰라린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화가 일상인 대한민국의 광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생태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초예술분야에 진입하는 이들이 갈수록 멀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역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있고, 자칫하면 지원조직에 투여되는 예산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릴 경우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3 그 많던 진보예술인들의 성지 광주는 어디로 갔는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 공연 분야의 모델은 광주로부터 발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늘 진보는 외롭고, 남루하지만 예지와 같이 빛나는 정의로 살아왔었다는 옛적 생각만 하느라 광주 스스로 챙기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형님 구실을 제대로 못한 것이 부지기수였다. 전시 한번을 제대로 모셔오지 못하고, 공연 한번을 협업하지 못하고, 문학대회 한번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다. 자기 정체성을 발현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곳을 또 방문하고 쫓겠는가.

4 언젠가 문학관 지원사업 심사를 갔다고 어느 전문가에게 고개 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생이 계시는 광주는 인구가 140만명이 넘는곳이고,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으며, 내노라하는 작가들이 포진해 있는데 아직도 문학관 하나 없습니까?'언어절의 순간이었다. 시 정부가 원망스럽고, 문학관 가지고 사적이거나 자기 조직만 생각하는 이들이 더욱 미워지는 순간이었고,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해서 이런 저런 문화재단을 만들어 기업의 이익만을 쫓아 주소지 쇼핑만 하는 그런 기업가들까지 원망스러운 순간이었다. 단체를 빼고 문학인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만들던지, 아니면 시민들과 집단지성이 모여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 것 아닌가.

5 문화전당에 관해서다. 아직도 전당을 직무대행이 운영하고 있다. 이 아이러니는 비단 문화부의 무능 탓만은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다운 위상을 확립하고 광주정신과 남도의 정체성을 담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발신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초빙하는데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대화체널은 개별적이기 보다는 지역예술인과 문화단체, 시정부 모두와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자칫 또 다른 오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건강한 기초예술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정기적인 급여 수여자는 배제 되어야 한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지위의 문화예술인들이 작은 것을 탐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으며, 큰 안목으로 새로운 진입 통로를 열어주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이다.

7 그래도 예술인은 힘들다. 시민이 함께 그 고통을 견뎌도록 하기 위해 예술인 우대 제도를 실시하자. 각종 문화시설과 대중교통은 무료로 이용하고, 각종 상업시설도 예술인 할인제도를 실시하자. 예술인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문화도시의 첫걸음 아니겠는가?

8 이왕에 어그러진 것,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들만의 공간과 지원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자. 그리고, 생활문화 부분의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다원예술센터, 생활기술문화공간 등에 대한 확충과 지원 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 민선7기 문화정책과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지방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나 지방정부 공약을 평가할 때 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기초예술 활성화임. 달리 말하면 기초예술이 너무나 중요한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의 반증임.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공급하는 예술가도 힘들고, 예술작품을 유통시키는 극장이나 전시장 운영자도 힘들고, 예술작품을 소비하는 시민들도 다같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야기임.

의·식·주가 인간의 신체적 욕망을 만족시켜 주듯, 기초예술이 인간의 정신적 허기와 갈증을 충족시켜 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임에도 왜 기초예술은 늘 힘들기만 할까? 시민들의 기초예술 향유 확대가 시민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문화산업과 과학기술과 도시발전을 촉진하고, 기존 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전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한다고 유네스코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데도 왜 기초예술 활성화는 요원한 문제일까?

마침,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문화경제부시장제를 도입했음. 문병재 국장이 발표한 발제문에 의하면 민선7기 공약 중 기초예술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새로운 것이 눈에 띄지 않음에도 기초예술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문화경제부시장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임. 정신적 갈증을 충족시켜주는 문화와 의·식·주를 책임지는 경제를 하나로 묶어 문화경제부시장으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것도 달리 보면 환상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음. 왜냐하면 기초예술의 활성화는 기초예술의 공급과 유통과 수요에 관계되는 제반 연관 산업과 지역의 재정여건 및 문화 환경을 각 영역별로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정책으로 수용, 이를 제도 및 지원 시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예 문화거버넌스 및 시민주체적 관점의 문화예술전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하고자 함.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고, 전문위원은 지역문화, 기초예술, 예술교육, 예술복지, 문화공간, 문화향유, 문화도시, 문화산업, 문화관광, 문화교류 등 10개 분야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10명으로 구성하되, 2년 임기의 상근 전문계약직으로 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으면 함. 이를 통해 기초예술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자 영역, 이를 감상하고 향유하는 감상자 영역, 그리고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제도와 시설과 같은 유통 영역으로 구분하여 어느 한 영역만의 강조나 활성화 보다는 이들 간의 상호 균형적인 발전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기초예술 지원 정책이 연구되고, 제안되고, 채택되고, 집행되었으면 함. 이 위원회를 통하여 다뤄졌으면 하는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기초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자 관점에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2018년도 지역협력형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지역특화 문화거점 지원, 문화예술교류 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610개 개인·단체가 신청하여 그 중 33%인 202개 개인·단체에 24억여 원을 지원하였음. 이는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3분의 1만이 지원 혜택을 받는 수준임. 최소한 신청자의 50%이상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 매칭 비율에 관계없이 지원규모의 절대치를 기초예술 의무할당제를 써서라도 확대해야 함.

둘째, 기초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을 생산적 복지차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재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등록을 한 예술가들에게 복지재단이 직접 예술인 패스카드 발급, 창작준비금 지원 등을 하는 것이 전부이고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광주문화재단에 예술이 복지창구를 개설하여 예술인 등록과 창작 준비금 신청을 대행해 주도록 하는 것이 전부임. 기초예술 창작과 향유 확대가 시민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도시 전체의 생산력을 확대시킨다는 생산적 복지 관점에서 최소한 국비로 지원하는 창작 준비금의 매칭액(1인당 300만원) 규모만큼의 광주광역시 지원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광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셋째, 기초예술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관객 지원도 기초예술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조성과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저소득층의 문화, 여행, 스포츠, 공연 관람 등의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국·시비 7:3 매칭으로 지원(50억원 규모)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도의 경우 공연·전시 이용률이 0.5%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기초예술 활성화에 기여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선 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2016년까지 20여 년간 운영했던 사랑티켓 제도를 광주만이라도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초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매개하는 제도와 시설과 같은 유통 영역의 확대가 필요함. 현재의 공공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이나 생활문화센터 지원으로는 기초예술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의 93개 행정동을 기준으로 각각 3개 이상의 우리동네 소극장, 우리동네 갤러리, 우리동네 도서관 등을 공·폐가 매입으로 조성하여 기초예술 단체나 예술가 또는 청년 공연 기획자나 큐레이터, 사서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다면 창작과 향유의 실질적 매개 기능을 회복하여 기초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아울러 풀뿌리 문화도시 조성도 가능할 것임.

다섯째,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문재인 정부와 민선7기의 핵심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광주광역시는 기초예술인들의 처우와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한 예술강사 지원 사업과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4개 문화예술단체에 각 1명의 문화기획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예술강사 지원의 경우 예술단의 안정적 창작 작품 공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은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이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기초예술 일자리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 지원 개발이 필요함. 기초예술분야의 일자리 특성은 크게 프로젝트단위의 고용(단기고용), 저임금 고 전문성(경력에 따른 임금책정이 아닌 스타와 비스타로서의 임금 책정 및 격차), 높은 업무 만족도(저임금, 불안한 고용안정성에도 높은 업무 만족감과 낮은 이직율), 연관 일자리 확대 생산 가능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초예술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정책화하여 추진한다면 문화예술 진흥 예산 이외에 일자리 재원을 통해 기초예술 활성화도 기할 수 있고, 일자리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실현은 가능한가

「민선 7기 문화정책과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동순 (조선대 자율전공학부 교수)

## 1. 민선 7기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

민선 7기 광주광역시문화정책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문화도시 만들기”다.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민선 7기의 문화 정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가 기대에 그치지 않고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발표한 문화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한다.

1)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목표로 제시한 「6대과제」는 ‘대한민국 문화수도’, ‘대표도시’, ‘국제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6대과제」중의 첫 번째가 “대한민국 문화수도 조성”이고 두 번째가 “아시아문화전당 기능개편”이다. 2가지 과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광역시에 펼쳐야 할 정책이지 광주광역시가 6대 과제로 내세워 실현해야 할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제로 내세운 것이 ‘국제관광도시 육성’이다. 국내 관광도시도 아닌, 국제관광도시로 키우겠다는 발상은 참 좋다. 하지만 실현이 가능한가를 따져볼 일이다. 우리 국민들도 광주에 머물면서 누리고 향유할 내세울만한 문화상품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이 실종된 포장만 아름다운 정책이 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여 실행하는 지방정부는 ‘시민’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아, 시민들이 누리고 향유하도록 한 다음에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시민을 위한 과감한 문화정책은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대표성을 갖게 될 것이며, 국제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 6대과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밝힌 「공약실천과제 세부 실행계획(안)」이 22가지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궁금하다. 특히 1, 7, 16번에 제시된 ‘광주만의’ 특별할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를 재편하며, 문화콘텐츠를 제작한다는데 그런데 세부 실행 계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것이다. ‘광주만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나?’,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3) 광주는 문학 예술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문학의 도시다. 현대문학사는 광주 없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문학적으로 우월한 인자를 가진 도시다. 그런 도

시에 아직도 '문학관'이 없다. (상대적으로 공연장과 전시장, 미술관은 많다. 당연히 많아야 한다.) 지난 민선5기, 6기 때도 문학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공약이행 여부를 묻는 언론의 인터뷰에 문학관은 건립할 것이라고 대답해 왔다. 그런데 아직도 광주에는 문학관이 없다. 민선 7기도 문학관은 건립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공약실천과 세부 실행계획을 보면 '지역의 훌륭한 문학작품과 5월 문학 등을 소재로 남도 문학유산을 계승하고 문학인들의 창작 지원을 위한' 문학관 건립의 목적만 제시되어 있을 뿐, 문학관 건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실행계획(안)을 자세히 알고 싶다.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궁금하다. 민선 7기에서는 문학관 건립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4)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다. 지난 민선6기가 수립한 계획대로 시립민속박물관 안에 리모델링해서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계획인 모양이다. 역사의 하위 범주 중의 하나가 '민속'이다. 그런데 이 실행계획대로라면 '민속'의 하위 범주로 '광주의 역사'가 있는 꼴이 된다. 행정편의주의나 경제논리로 역사박물관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우리들의 자랑스런 역사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과 기초예술지원에 대한 용역 결과, 그리고 오늘 토론을 토대로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한다면 명실상부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면 좋겠다.

## 2.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

조인형 연구원의 「기초예술현황과 발전방안」의 부제는 '공연예술을 중심으로'다. 공연예술을 중심으로만 '기초예술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마련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연단체 수는 감세 추세인데 공연단체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고,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 84.7%에 달하고 있는데 공연단체 종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궁금하다. 사실 공연 예술에 대한 정부 정책의 프레임이 전국공통의 사항이자 문제라면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광주공연예술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고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다.

# 민선 7기 문화정책과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

윤만식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 1. 민선 7기 광주광역시 문화정책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개방형 전문가 공모선정

\*문화예술 회관 장

\*재)비엔날레 사무처장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관련 기관에 대하여

\*시립미술관

\*재)문화재단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포럼

-예술단체에 형평에 어긋난 지원정책

## 2. 기초예술 활성화

-광주 민예총 소속 기초예술 단체의 실상과 활성화 방안

-광주, 전남 '한국 민족극 운동 협회' 소속 단체의 현 상황

\*민족극의 개념

\*광주 놀이패 신명

\*광주 극단 토박이

\*목포 극단 갯돌



## 기초예술은 예술적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홍 (치유예술가)

새로운 민선7기는 '품격 있는 광주'를 말한다.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격을 갖춘다는 것은 성숙한 사회를 뜻하고 성숙한 사회는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사회다. 국제적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도시지만 광주는 문화의 포용력이 떨어지는 도시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한 민선 7기는 일자리정책을 강조하면서도 기초예술에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민선7기 문화정책 기조 글에도 "...문화산업 발전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며, 정부나 지자체, 기업체 등이 기초예술 종사자에 대한 창작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으로 기초예술이 창의적이고 지적인 아이디어의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방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제부터 논의구조를 갖고 민관이 협력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사회다. 즉 모든 가치가 돈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효용성과 실용주의 풍토에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기능으로, 직위로 명명되고 불려진다. 철저하게 직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직위에 의해서 사람도 규정된다. 마치 계급사회와 비슷하다. 이런 풍토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순수예술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어쩌면 사회의 계층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계급이 없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s)같은 열외자의 느낌이 든다.

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순수예술가의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을 전공했고 '예술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며 고뇌하는 청년기를 보냈다. 그때 잘 나가는 선배들이 했던 말은 '10년만 붓 놓지 말고 버텨라. 그러면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게 된다.'라는 충고였다. 그 당시는 어렵다고 해도 화가들의 작품을 집에 걸어두거나 예술가 친구를 두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었기에 광주를 예향이라 불렀던 것이다. 광주에

술가들의 자존감이 높았던 것이다. 나는 그 선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작업실이 없으면 길바닥에서, 밤에는 가로등 밑에서 그림 그리며 10년을 버텨도 그림을 팔아서 생활이 되지 않았다.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으로 작품을 좋아하는 부자 친구가 나타나서 꾸준히 그림을 수집하는 행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작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일은 어렵다. 첫 번째 개인전을 1992년에 했고 2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내가 좋아서 하는 그림을 팔아서 생활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방송 토크, 콘서트나 공연, 샌드애니메이션 영상콘텐츠 등을 제작하면서 생활하고 작업비용도 벌고 있다. 방송진행처럼 그렇게 외부에 의해서 요구된 작업을 나는 '예술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말한다. 아직까지도 돈이 되지 않는 드로잉퍼포먼스나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다.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일이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쓰는 일, 그 순수예술을 왜 아직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예술 작업은 내적 동기로 하는 열정의 표현이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숙제하듯이 일하는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인간답고 창조적인 삶의 길이다. 나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술가가 더 인간다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돈이 권력이고 가치의 중심이기에 돈을 많이 버는 길만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고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순수예술의 길을 가는 기초예술, 순수학자의 길을 가는 기초학문은 마치 쓸데없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적으로 나도 작업을 하면서 '빨짚거리하는 4차원'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다. 이러한 풍토는 기초학문을 하는 학자나 순수예술가의 자존을 무너지게 만든다. 광주에서 작가로 살아가는 것이 자존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광주에서 작업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에 손가락질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풍토를 바꾸는 운동이 필요할 만큼 예향이라 하기에 품격이 부족하다. 기업의 메세나와 광주시민들의 유료티켓 공연보기, 순수예술작가 지원하기 등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깊게 생각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에서 단순하게 생각으로 청년작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성과를 검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관에서 지원했다는 이유로 창작에 간섭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건 예술의 자발성을 거세시키는 일이고 문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이다. 물을 한 번 주고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일은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나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의 예술 풍토를 잘 들여다 보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는 국제 예술 도시다. 그렇다면 국제 예술도시에 걸 맞는 토양을 만드는데 노력하면 될 것이다. 순수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가 예술에서는 국제무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자존을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한다면,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지방작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 광주의 예술정신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전위성을 표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곳, 자유지수가 높은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라는 도시가 질 좋은 토양이라면 자연스럽게 기초예술의 다양한 씨앗들이 날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문화의 숲에서 열리는 다양한 열매로 문화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기초문화예술(인)정책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그동안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삶의 양적, 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며 산업성장을 주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수송 등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인간의 소외감,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급속히 다가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인간 최고의 목적인 행복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빅토르 후고는 '예술이 인간 본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돕는다'고 했다. 문화예술은 행복을 느끼고 본질을 회복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영역이다. 예술은 창조되고 사라지고 다시 창조되고 사라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예술은 긴 여정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된다.

첫째)

민선7기의 문화정책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6대과제 22개의 세부실행계획(안)은 '대한민국', '아시아문화전당', '첨단실감', '국제도시'등 거대한 타이틀로 광주만의, 광주만의, 광주만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공간 건립, 기구 설립, 지구 지정, 거점 조성,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 종합개발계획 수립등 등으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일색이다.

둘째)

기초예술에 대한 실태 조사와 문제점 인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을 대책이라는 활성화 방안으로 대체한 듯하다. 언제 어디선가 들었던 문제점과 정책제안으로 기사감 같은 것이다. 그래서 또 재차 인식하고 제안해야 하는 연속적 반복을 해야 한다. 자료에 나타난 광주시 기초예술 지원사례

는 아주 미약한 일부분이다. 광주시립예술단체등의 예산지원사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기초예술(인), 민간예술(인)의 상대성을 파악할 수 없다. 열악하고 가난하여 예술경영이 안 되는 기초예술(인)에 대한 대안을, 전문예술경영인으로 교육하고 기획자를 양성해서 향유자의 니즈에 많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 단체일 경우에만 기반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대책마련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와 자금심 고취와 창작활동 지원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등은 상당한 인내를 요구했다.

셋째) 아시아 문화전당은 2015년 개관 이후 지역예술(인)에 특별히 폐쇄적이었는데 어떻게 연계, 운영체계 조정과 킬러콘텐츠 생산 등을 한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네째) 예술인 활동영역 확대를 통한 예술가 일자리 확대 및 창출이란 무엇인가? 예술가 일자리 창출이라니? 예술인의 일자리는 예술 활동이 아닌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방안과 제안은>

(1)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예술아카데미학교 건립

▶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는데 가장 기본 조건은 학교건립이다.

예술가를 꿈꾸는 어린세대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술학교를 건립하여 차세대 예술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 필요

▶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예술이 오랜시간 걸리는 만큼 전문예술학교를 건립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가로 육성하는 것이 관건

(2)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과 공간 대여

▶ 민간 공연단체의 공간임대료 및 운영인건비 보조

(예, 개인 등록 미술관인 경우 1년 공간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

-운영비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임대료와 인건비등이다.

▶ 아시아문화전당 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기초예술(인) 창작공간과 연습장으로 상시 운영 전환

(3) 문화예술지원사업 시스템의 구조를 변화

▶ 민간보조사업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작품을 제작하는 보조사업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 대표자 지급 불가 (연출, 작가, 배우, 지휘자, 연주자 등) --> 외도를 유도
- 단체 수익구조 불가능 --> 불안정한 운영시스템
- 지원금 전액 경비 지출 --> 구조적 불균형 반복

(4) 광주문화예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홍보를 위한 통합 시스템 운영이 절실
- ▶ 현장활동(본업) 예술가 데이터 베이스 구축-->예술복지시스템 운영

(5) 기업과 공연단체간의 메세나 운동 촉구

(6) 예술 장르별 지원사업비의 불균형 해소

- ▶ 예) 수 천만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는 초대형 제작비, 수백개의 개봉관, 끊임없는 홍보 등으로 저예산, 예술영화에 비해 관람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 ▶ 문화예술 장르별 예산 지원현황에서 드러난 장르별 지원예산은 기초예술(인)의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의 유기적 소통으로 광주시 문화정책과 기초예술(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8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8년 9월 12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8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